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 대강절 연속기도회가 12월 15일(일) ~ 24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교육과정 피드백 모임이 오후 2시 아브라함 장막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와 등록준비위원회 연석회의가 18일(목) 오후 8: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21일 오후 2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연령별사랑방 연합찬양모임이 21일, 오후 1시30분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결혼기념)
 이충환(생일) · 최연우 집사 가정
 김예지 · 김이레 · 김성기 집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집사 가정 (감사)
 이명호 집사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50호

2025년 12월 14일

사랑방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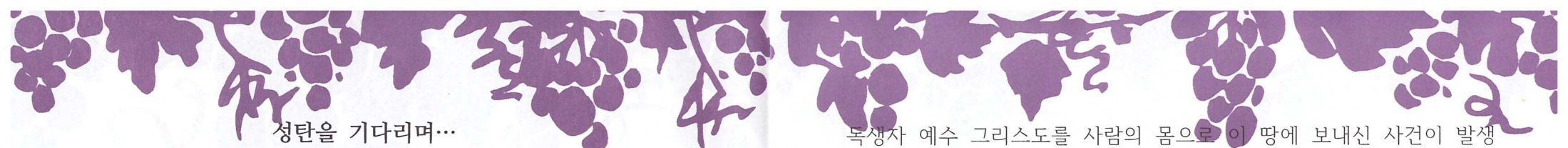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피아노와 색소폰의 크리스마스 재즈 선율이 따뜻한 실내공기를 부드럽게 타고 내린다. 맑은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 같이 은은한 빛을 흘리는 테이블이 너무 멀지 않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빛 아래 살짝 살짝 드러내는 사람들은 1년 중 가장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테이블위에 담배 연기처럼 채워져 있다. 깔끔하게 셋팅된 요리들과 접시에 닿는 포크와 나이프 소리는 식욕을 자극한다. 웨이터를 따라 빨간색 양초 두 개가 불을 밝히고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녀와 가장 친한 벗들과 함께 맛있는 정찬을 주문해서 짙은 자주 빛 프랑스산 레드와인과 함께 지난 학창 시절 이야기를 나눈다. 가끔 창밖에 반짝이는 불빛과 오가는 사람을 구경하며 오늘의 주인공인 그녀를 위해 몇 달을 고심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준다. (중략)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태 경험하지 못한 가장 멋진 성탄절을 대충 상상해 본다면 위에 그려진 그런 모습이면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 올 때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진짜 후회 없이 멋있게 보내야겠다 각오를 다집니다. 하지만 여태 보낸 성탄절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성탄절은 잘 안 떠오르는게 사실입니다. 설렘과 온갖 상상들로 들뜨기도 하지만 어릴 때 막상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나서 떡국 한 그릇 먹고 교회 문을 나서면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늘상 갔던 극장 아니면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며 남들 노는 걸 구경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탄절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은 아닙니다. 성탄절은 타락한 인류를 포함한 우주 만물을 구원할 기쁜 뜻을 품으시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작고 가냘픈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도 인간으로서의 첫 출발선에 같이 서 있으셔야 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별거벗은 몸뚱아리 외에 하나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뭐 하나를 더하거나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른 인간들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인간 가운데 가장 무능력하고 연약한 갓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낮은 자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 때부터 품으셨던 그 뜻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한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막 태중에서 나온 아기와 같이 전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되어지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만으로 사랑방공동체 식구들 모두 만족하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성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나의 일부가 아닌 나를 기꺼이 참여시키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사랑방 이효성목사

2008년 12월 14일 주보에서 발췌

한주간의 말씀

“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 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 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
< 이사야서 35장 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23, 80 / 96

기도 : 이재신 집사

성경 : 요한복음 18 : 1~14절

제목 : 메시아께서 스스로 수난을 당하시다

1. 내용: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스스로 체포당하시다 (What)

<문단구분>

1~14절 예수께서 스스로 체포당하시다

2. 의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 (Why)

- 1)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
- 2)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셨다.
- 3) 제자들의 믿음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3. 적용: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How)

- 1)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믿자.
- 2) 나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자.

하루는 감사한 우리 모두의 선물입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모든 분들, 건강 챙기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한의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밤새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에 의미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 날인지 마음 깊이 새겨 봅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저의 갑작스런 소식으로 놀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체운영위원회 워크숍을 잘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무림리 들어오는 길 오리킹 식당쯤에서 제 앞의 차가 가다 서다 몇 번 하다가 시속 10킬로미터로 가는 와중에 갑자기 광 하고 제 차와 부딪치며 사고가 났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순간 다리가 아파서 안에서 놀란 맘을 달래다가 사고차 주인이 꿈쩍을 안 하기에 밖으로 나가 사고차 문을 두드리자, 그때야 사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들도 와서 음주측정기를 시험하고 이거 저거 묻고 제 신상정보를 가져갔습니다ㅠㅠ 괜히 무서웠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몸이 괜찮아서 신랑이 병원 가자는 것을 괜찮다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아프고 울렁이고 그래서 가족들의 권유로 밤늦게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뇌 쪽은 괜찮고 다만 뇌진탕이 잠깐 왔었다고 해서 약 처방을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전화 주시는 모든 분들이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심하니 꼭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없던 고혈압이 나타나고 여기저기 멍투성이에~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앞차의 느린 주행이었습니다. 그 차가 느리게 시속 10킬로미터로 달렸기에 제 차가 위험을 감지하고 절 보호해줬으니까요. 제 작은 믿음으로는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꼭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보내십시오. 샬롬!

비움사랑방 최연우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역대상 16 : 28-29
31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105, 125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이사야서 35장
오 거룩한 밤
“ 주님의 영광을 보며 ”

설교자
비움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89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예지 김이레 / 봉헌위원 : 이운순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배

공동기도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흔들림 없이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며

기쁨의 노래.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표현이 꽃으로 피어납니다. 레바논의 영광은 백향목의 위엄이며, 갈멜과 샤론의 영화는 샤론평야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하게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본질을 담아내기에는 사람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기쁨. 마지막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다시 기쁨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메마른 광야가 물댄 동산이 되고, 황폐한 심령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충환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가득한 12월입니다. 꾸러기들과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성탄장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접기도 하고, 모루로 지팡이도 만들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부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물어보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는 언니 등 한 사람당 7장 정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지 이틀 되었지만 하루에 2장~4장씩 카드를 정성껏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방학 전까지 갈 예정이며 노는 걸 너무 사랑하는 꾸러기들이지만 만들기가 너무 재밌어서 푹 빠져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카드를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바로 송승환의 호두까기 인형을 서울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고, 스토리도 멋지게 각색하고, 무엇보다 노래와 춤이 너무 멋져서 우리 꾸러기들이 뚫어져라 쳐다보며 즐겁게 봤습니다. 다음날 돌아와서 오랜만에 공연놀이도 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하루하루가 모여 한해가 되었습니다. 한해의 마무리를 12일 금요일에 지었습니다. 성대하게 학기말 발표로 말이죠.

ERE 보도국이라는 타이틀로 올해의 굵직한 일들을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1년의 필름이 죽~ 이어져 보여졌습니다. 1학

배움과 가르침

마다 정해진 책을 읽고 담임 선생님과 같이 있게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1학년들의 깜찍한 콜라보와 4학년들의 유머, 5,6학년들의 멋진 풍물에 부모님들과 동문들과 친척분들은 감동과 환호가 담긴 박수로 우리 어린이들의 가슴에 자부심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정성스런 식사와 합창은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이 느끼게 해주었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의 노래에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면담과 졸업여행과 컨퍼런스 등 여러 일들이 남아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움을 가득 안고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멋쟁이총회와 가족회의가 끝나고 멋쟁이들이 외친 방학선언은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안도에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곧장 준비기간을 거친 이후에 학부모 기말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종강을 앞두고서 멋쟁이들과 기말면담을 거치며 한 학기의 성장을 확인하고 돌이켜봤듯이, 학생과 대부분의 시간을 떨어져 지낸 부모님께 그 간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모든 부모님과 선생님이 가정별로 만나는, 대단히 중요한 때이기도 하지요. 짧게는 한 학기부터 길게는 6년을 정리하는 이 면담의 장은 보통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설령 학생이 실패하고 방황한 것처럼 느낀 시기라 할지라도, 희망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존재하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아두고서, 면담은 계속됩니다. 이 뜻깊은 시간들이 잘 이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멋쟁이도 방학계획을 상기하면서 뜻 깊은 방학 보내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2025년 12월 13일

오늘은 두 번째 흰 눈이 오셨다. 언제 부턴가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모든 것에 불만이 없어졌다. 비든 눈이든 바람이든 더위든 추위든.. 너무 심해 여기저기 불편함이 생겨도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맞이하는 마음을 바꾸니 날씨 탓 없는 마음이 그저 좋다. 남편은 그루터기 방장님의 독을 받고 밖으로 눈을 쓸러 나갔고 나는 따뜻한 집에서 어김없이 아들과 말씀을 읽고 나누었다. 둘이서만 진득하게 장기간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이다. 아들이 작은 사고로 코 수술을 받고 입원실에서 커튼을 치고 시작하게 된 게 한 달이 되었다. 처음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 수가 없었다. 안전과 안녕을 바랬던 부모의 기도가 었나갔음이 감지되었을 때의 당혹함 앞에서, 너무나 아파하는 아들을 보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다. 그 마음을 부여잡고 시작한 읽기가 지금은 이렇게 안락하게 우리를 채워준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었나간 게 아니라는 걸 알아간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빗겨간 것이 아니라 명중했음을 알아간다. 말씀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합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고로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아들과 함께 말씀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모를 일이긴 하지만, 사고 이후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감사한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넘어 완전하신 뜻까지 알게 되기를 함께 바라게 되었다.

요즘 우리 가족은 2년 동안은 꼭 함께 살아보기!!를 하려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2년 후에는 남편이 퇴직을 하고 아이들은 독립을 할 것이다. 가족이 다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이 현대의 삶이라 우리는 애써 이것을 지켜보려 한다. 아빠, 엄마가 사랑방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기도의 1번이다. 다음 주에는 딸아이가 4년을 정리하고 짐을 들고 집으로 온다. 아웅다웅 무슨 일이 벌어질지.. 휴.. 그래도 우리 2년은 잘 살겠지 ~~~? 그루터기사랑방 하경임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91, 270, 488

성 경 : 학개서 2장 1-5절

말 씬 : 주님께서 힘내라 말씀하시다.

중보기도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자연재해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

최근 동남아시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단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8일(월) 밤에는 일본 동쪽에서 강도 7.6의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 경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대강절을 보내는 교회들을 위해>

- 1)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며 마음을 잘 모으도록
- 2)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장례식 중에 계신 노효종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2) 연말 공동체 업무와 학교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 3)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어린이학교는 종강발표회로 멋쟁이학교는 학부모 면담으로 학교 선생님들인 공동식구들은 어느 때 보다 바쁘고 힘든 일정을 보냈습니다. 독감을 비롯해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과 송구영신예배 등 연말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